

K

K 붙으면 일단 호감 한류에 빠진 日 MZ



Cover Story 패션·식품·문화... 일본 휩쓰는 K프리미엄 현상

가수 뉴진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마명킹 팝업스토어.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의 거리는 K팝(K-POP)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에 참여하기 위해 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란 참가자 100명 이상이 무작위로 흘러나오는 K팝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행사인데요, 매달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1시간 동안 40곡의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편의점에는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한 기획 행사인 ‘한국 페어’가 등장했습니다. 세븐 일레븐, 패밀리마트 입구에는 일본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신라면·불닭볶음면뿐 아니라 한국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크롱지, 약과 디저트, 10원빵 등이 정렬돼 있고 벽면에는 한국어로 ‘불닭볶음면 먹어보세요’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나 브랜드는 한국색을 지워야 생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한국)를 붙여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K프리미엄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한층 커졌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한국 트렌드를 접하고 관련된 패션 아이템과 브랜드까지 관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미즈

씨(19)는 “일본 틱톡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의 자기관리법이나 패션 아이템을 알려주는 영상이 유행”이라며 “한국인처럼 꾸미는 일본인들의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한 국내 드라마와 영화 수출은 등장인물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의 유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서 10주간 1등을 차지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험빈이 양념치킨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일본 BBQ는 매장을 10개 이상 추가로 열고 굽네치킨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손예진이 화장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해당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이 57.3%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 한류의 인기에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토리 세대의 소비도 일조합니다. 사토리 세대는 민족주의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본의 MZ세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문화의 일본 진출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두 나라의 정치·외교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사토리 세대가 한류의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며 더 이상 인기를 흔들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택시기사 기쿠오 씨(49)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보는 겨울연가·대장군을 시청하고 초등학교 당시에는 소녀시대와 카라 무대를, 고등학교 때는 방탄소년단과 불닭볶음면을 접하는 등 한류를 태어날 때부터 깊게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김혜순 기자·장해린 인턴기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독서가 힙하다”… Z세대 텍스트힙 열풍

“휴대폰을 보는 것보다 책을 보는 게 훨씬 힙하고 트렌디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SNS)에서 ‘책스타그램’이나 ‘북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책 속 인상 깊은 구절을 찍은 사진이나 필사 노트, 자신이 읽은 인생 책들을 소개하는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 사이에서 인쇄된 활자를 읽는 행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책 읽는 모습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됩니다. 텍스트힙(Text Hip)은 ‘글자’를 뜻하는 ‘Text’와 ‘멋있다’는 의미의 ‘Hip’을 결합한 신조어로, 독서를 멋지고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Z세대는 단순히 책 읽기를 넘어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이나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는 데도 열정을 보입니다.

10·20대 젊은층의 독서 트렌드는 여러 통계치를 통해 확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 독서율은 74.5%로 성인 평균 독서율인 4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예스24의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도서 구매량은 5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1~6월) 10대의 도서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3%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유명인들이 책을 추천하면서 독서 트렌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에서 추천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업로드 직후 교보문고에서 전월 대비 2배 이상의 판매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진스의 민지가 뮤직비디오 ‘버블검’에서 읽었던 ‘순수의 시대’, BTS의 RM이 읽은 ‘다시, 그림이다’ 역시 큰 화제가 되어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독서 열풍을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하려는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 ‘독파민’이라고도 부르는데, 독파민은 독서와 도파민의 합성어로 디지털 콘텐츠 대신 책을 읽으며 느끼는 즐거움에서 새로운 만족감을 찾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디지털 치매 및 디지털 디톡스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5%가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도심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을 서울광장, 청계천, 광화문광장에서 상시 운영 중인데요. 이 공간에서는 누구나 예약 없이 서가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는 명소가 되어 9월까지 서울야외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은 1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책을 읽으



광화문광장 야외도서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운영하는 서점.

매경DB

며 숙박할 수 있는 ‘북스테이’, 주민만의 독특한 취향으로 꾸며진 독립서점 등 단순히 독서를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들도 생겨나면서 젊은 세대에겐 독서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집필한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깜짝 수상하면서 독서 열풍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강의 저서는 노벨상 수상 발표 후 하루도 안 돼 3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가 모두 한강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점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고, 젊은 세대들의 독서 열풍은 한층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세운 인턴기자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휴대폰 보는 것보다
책 읽는게 더 트렌디”
북스타그램 SNS서 유행
서울야외도서관 핫플로
노벨상 ‘한강읽이’ 겹쳐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매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北, 우크라전 참전... 일촉즉발 국제정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군사기지로 출지어 이동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친러시아 성향 텔레그램 채널인 파라팩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파라팩스

美로 '주식미인' 700만명 넘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가 작년보다 50만명 늘어 71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보유자가 1400만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9개 증권사를 통해 달러로 환전한 투자자는 71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달러로 매수·매도한 투자자를 모두 합한 숫자이며,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서학개미' 수치

▶ NIE 준비하기

1.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지 토론해봅시다.

로 볼 수 있습니다. 달러 환전 투자자는 2021년 588만명에서 2023년 659만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기록을 넘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 투자자는 2020년 919만명에서 2022년 1440만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1415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매일경제 10월 14일 A1면 보도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북한, 러시아에 1만2000명 파병 약속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미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18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참전이 현실화되면서 전쟁 양상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이동시킨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1차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송

▶ NIE 준비하기

1.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2.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봅시다.

되었으며, 곧 2차 수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여러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을 훈련을 마친 후 전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 북한군 파병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매일경제 10월 19일 A1면 보도



710만명

올해 8월 말 기준
해외 주식 투자자 수

1만2000명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병력

100만부

노벨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 소설 판매량

'한강알이' 6일 만에 100만부

'한강 신드롬'이 출판업계를 강타하면서 한강 작가의 소설 판매량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만 100만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 중 200만부 판매라는 조유의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책 판매량은 98만부를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보문고에서 36만부, 예스24에서 37만부, 알라딘에서 25만부가 판매되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선정에 대한 스웨덴 아카데미의 평을 알아봅시다.
2. 한강 작가의 수상이 향후 국내 도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봅시다.

한 작가의 책이 6일 만에 100만부 돌파를 앞둔 것은 한국 출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이 정도의 열기는 그동안 감지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 10월 16일 A1면 보도



지금 일본은... 아날로그와 '헤어질 결심' 중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서 통장 만들려면
은행 방문해 낱짜 예약
서류 인쇄·도장은 필수
혁신 요원했던 日금융
팬데믹 거치며 대격변
비대면·디지털 대세로

“고객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시려면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뺏는데 도장이 필요하다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입출금부터 통장 개설까지 모두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는 모습은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옆 나라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도장이 통장 개설이나 현금 입출금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 속도와 모바일 기술의 발전 덕분에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화된 지 오래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절차가 간소해졌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에서 간편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만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도쿄에서 직접 경험한 일본 금융 시스템은 아날로그에 가까웠고 여전히 대면 상담, 종이 문서, 도장, 현금 선호 등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은행을 방문해 접수 낱짜를 예약하고, 예약한 낱짜에 필요 서류를 전부 인쇄하고 도장을 휴대해 재방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더라도 통장 신청부터 발급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 접수 후 대기, 서류 확인 및 통장 디자인 선택 후 대기, 통장 비밀번호 설정 후 대기 등 무한 대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방식의 금융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신뢰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오랜 기간 지속된 전통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갖은 자연재해를 경험해온 일본 사람들은 금융 결제 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현금 거래와 현금 보유를 선호합니다. 또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보다는 은행 직원과 직접 소통하고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대면 상담을 더 좋아합니다. 금융기관 역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꼼꼼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

고 종이 문서와 도장 등을 통해 업무 근거를 남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관리하고, 도장을 찍고, 현금을 손에 쥐고 거래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바일뱅킹,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선호, 현금 선호 문화가 약해진 것입니다.

일본 대형 은행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장, 종이 서류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태블릿PC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금융사인 미쓰비시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계좌 개설, 입금 등 업무 절차의 70%를 태블릿 등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장이나 종이통장이 필요 없는 계좌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즈호은행도 송금, 계좌개설 등을 태블릿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 법인인 SBJ은행은 일본 최대 SNS 플랫폼 라인과 제휴해 다양한 비대면 상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부동산 대출 상품은 신청부터 시행까지 전면 비대면화에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SBJ은행은 자회사 ‘SBJ DNX’를 설립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개발해 일본 현지 금융기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자체 뱅킹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정보기술(IT) 회사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주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BJ은행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일본 현지 은행들에 디지털 노하우가 담긴 뱅킹 시스템을 제공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성 인턴기자



“아동 학대 막아야” vs “창의성 억누를 수도”

키즈 인플루언서 법적 규제 도입

키즈 인플루언서란 장난감 리뷰, 브이로그, 게임, 슬라임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어린이를 뜻합니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틱톡, 릴스 등의 숏폼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SNS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최근 키즈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을 막는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아동의 권리와 안전 보호

키즈 유튜브의 경우 어린이가 직접 콘텐츠에 출연하고, 제작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장시간 촬영이나 수익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튜브 활동이 부모와의 즐거운 놀이처럼 시작되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놀이’로 시작된 활동이 ‘노동’으로 변질되며 아이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모와 사회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부모의 상업적 착취 방지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람튜브’는 2017년에 전기 모기채로 아이를 협박해 춤을 추게 하거나, 자동차로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의 다리를 절단하는 등 논란이 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보람 양에게 임신과 출산 연기를 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죠. 결국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태희의 해피하우스 등 여러 아동 유튜브 채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명한 키즈 유튜브가 되면 얻는 수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표현의 자유·자율성 침해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유튜브나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창의력을 기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키즈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아이들이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아동의 자율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부모의 양육권 존중

키즈 유튜브 활동은 보호자인 부모의 지도 아래 이뤄지며, 부모는 자녀의 활동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부모의 양육 방식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SNS에 업로드되는 영상이나 사진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을 법으로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키즈 인플루언서와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가족 내 자율성과 부모의 역할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김도연 인턴기자



1

규제는 아동을 보호할까
창의성을 해칠까

2

아들 놀이가 노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3

부모 양육권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할까

길에서 주운 복권, 10만원에도 안 파는 이유는

Q.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구매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1000원이면 사겠다, 그 이상 돈 주고 구매하진 않겠다'고 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는 길에 떨어져 있는 복권 한 장을 줬게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미리 잘 보이는 위치에 떨어뜨려 둔 복권이었죠. 제작진 측은 배우가 할아버지 옆을 지나가며, "주운 복권이 당첨이 잘 된다던데"라는 말을 하고는, 다가가서 그 복권을 팔라고 요청했죠. 할아버지는 복권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10만원에 구매해 드린다고 했는데도 마다하셨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안 팔거나, 적어도 5만원 이상은 받아야 팔았죠. 왜 이런 걸까요?



김나연 선생님의
쉬운 경제

A. 1000원 이상 지불해서 구매하진 않겠다고 했다가, 그걸 손에 넣은 상태에서 팔라고 하니 10만원에도 안 파는 사람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예요. 자신이 보유한 걸 팔고자 하는 가격이 구매하고자 할 때 내고자 하는 가격보다 높게 마련입니다. 이 심리를 파헤치기 전에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임에 참여하시겠어요?

A: 100% 확률로 5만원을 받는다.

B: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원을 얻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50만원을 잃는다.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B를 선택합니다. 게임 A의 기댓값은 1만원이고, 게임 B의 기댓값은 25만원이거든요.

B게임은 50% 확률로 100만원을 얻고, 50% 확률로 50만원의 손실을 보니까 '100만원 × 0.5 - 50만원 × 0.5 = 25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죠. 확률적으로 볼 때, 참여하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합니다. B를 택하면 100만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50만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50만원을 잃는 고통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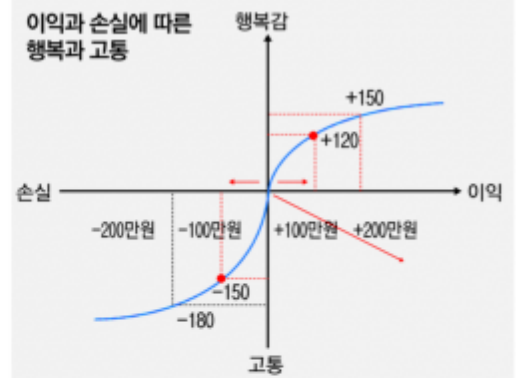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3만원이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걸로 뭘 하고 싶으세요?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사고 싶던 티셔츠를 살까. 여러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이번엔 만약 지갑에 두었던 3만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3만원으로 못하게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야 하던 더 많은 게 생각나고, 그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들은 같은 가치라도 얻게 될 때의 기쁨보다, 잃게 될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런 심리를 '손실 회피(loss aversion)'라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옆의 그림처럼 표현됩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이익과 손실, 세로축은 행복감과 고통을 나타내요. 기쁨의 행복감을 120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150인 거죠. 내 지갑으로 들어올 때보다 내 지갑에서 나갈 때 그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길에서 주운 복권을 안 팔겠다는 할아버지의 심리도 이와 연결됩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팔아버린 복권이 당첨된다면, 그 손실의 고통이 무척 크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아



게티이미지뱅크



깝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당첨 가능성이 있는 복권이 아니라더라도 이런 현상은 발생합니다. 한번 내 손에 들어와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얻을 때보다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손실회피

같은 가치라도 얻게 될 때의 기쁨보다, 잃게 될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런 심리를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내가 가진 걸 팔고자 하는 가격이 같은 걸 내가 사고자 가격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중고로 팔고자 하는 물건, 파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가격이 사려는 입장에서 비싸게 느껴지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상밖 사고 났을때 도와주는 '삶의 우산' 보험



게티이미지뱅크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보험은 우리가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큰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보험은 미리 준비해둔 안전망이 되어준다. 아래에서는 보험 회사의 역사와 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험의 역사

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약 100년 전이다.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험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렸다. 당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물건을 운반하는 해상 무역이 활발했는데,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대비하는 해상 보험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이때 해상 보험은 상인들이 배가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때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었다.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일제강점기 때, 일본 보험 회사들이 들어와서 보험 시장이 조금 더 커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생명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생명보험은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보험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새로운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도입되면서 보험 시장은 점점 더 커졌다.

오늘날, 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 병원에 가야 할 때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나 치료비를 보험 회사가 대신 부담해 준다.

보험의 역할

갑자기 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들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고치거나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그 비용을 보험 회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자동차를 고치거나 병원비를 내는 데 드는 부담이 훨

씬 줄어든다.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병원비의 일부를 보험 회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더 쉽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아플 때 적은 돈으로 치료받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보험 회사는 사람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모아서 투자를 한다. 이 돈을 다른 회사나 큰 프로젝트에 빌려주거나 투자하면서 나라 경제가 더 잘 돌아가도록 도와준다. 보험 회사가 많은 돈을 모아서 어떤 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회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험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다.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 부모님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

미래의 보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거나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일이 많아진다.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보험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연금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달 일정한 돈을 받아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도와준다.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아주 활발해졌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을 선택하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험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보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큰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왔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시사용어 CHECK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족이나 지정된 수익자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보험.

상해보험
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이나 장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

“용서하지 않겠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명령

대원군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先儒)를 제사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대원군은 군졸을 불러 항의하는 유생들을 한강 너머로 몰아내었다.……-박재형(근세조선정감)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조선시대 서원은 어떤 곳이었나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士林)이 설립한 지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지방의 사립 대학입니다. 국가에서 세운 학교로는 성균관(서울), 향교(지방)가 있었습니다. 서원에서는 서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에 대한 교육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 처음 서원이 세워진 것은 1542년 중종 때입니다. 당시 경북 풍기의 수령 주세붕이 그곳 출신의 유학자 안향(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고려의 유학자)의 제사를 지낼 사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주세붕은 백운동 서원을 세우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은 성현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세붕 이후 이곳의 수령으로 부임한 이황은 백운동 서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인재들 키워낸다는 뜻을 담아 친필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을 내려줍니다. 소수서원은 국가로부터 넓은 토지와 노비, 책 등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황은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진 인재 또한 서원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연산군 시기부터 이어진 사화 여파로 지방 향교가 피해를 당할 때, 지방 서원은 중앙의 권력자나 수령의 견제를 피하고 각 지역 양반들이 유교적 향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원은 성리학 개념이 여건에 맞게 바뀌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가 인정돼 2019년 한국의 14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서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임진왜란 이후 전국 수백 곳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서원은 왕이 내리는 현판과 함께 넓은 토지와 노비들을 받았습니다. 서원의 토지에는 세금이 없었고,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역에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국가 지원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조상을 모시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왕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은 사실상 국가의 공인을 받았다는 뜻이기에 서원 양반들은 선현의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의 농민들을 수탈하였습니다. 서원의 제사 비용을 내지 못한 농민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반에게 불경하다’ ‘부모에게 불효했다’며 백성들을 서원에 데려다 구타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미 수령의 수탈에 지친 백성들은 서원의 횡포에 다시 한번 몹시리쳐야 했습니다.

서원은 국가에서 세운 향교와 달리 여러 선현을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 중심으로만 제사를 지냅니다. 당연히 그 인물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의 집합지



흥선대원군.

가 됩니다. 송시열의 제사를 지내는 화양서원과 윤증의 제사를 지내는 노강서원이 각각 노론과 소론 유생을 배출하는 학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생들은 ‘내 스승이 더 훌륭하다’며 다른 봉당의 인물을 흠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앙의 정치 세력들은 자신과 친한 서원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서원은 봉당의 대립을 격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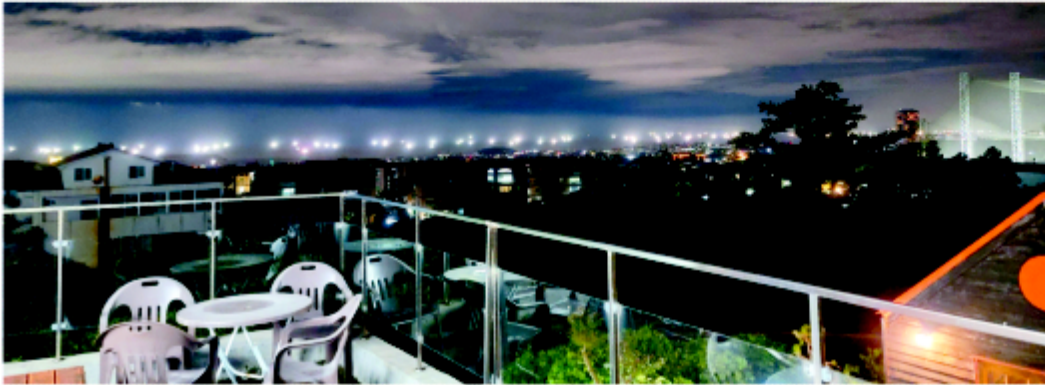
서원의 난립으로 폐해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국가 역시 서원에 대한 통제에 나서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이전에 서원을 크게 정리한 사람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허가 없이 세워진 서원들과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조 사후 다시 서원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면서 전국의 서원이 1000개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지방 양반의 수탈 수단으로 전락한 서원을 대거 철폐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내 도왔던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던 만동묘와 노론의 정신적 지주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화양서원이 철폐되었습니다. 유생들의 격렬한 항의와 시위가 이어졌지만 흥선대원군은 철폐된 서원의 신주를 땅에 묻게 하며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철폐한 서원 소유의 토지와 노비는 몰수되어 당시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부분의 서원이 철폐되면서 백성들은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 1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을 세운 사람은?
- 2 서원이 왕에게 현판을 받으면 받는 혜택은?
- 3 서원 47개를 제외하고 모든 서원 철폐를 주도한 인물은?

제주가 지켜온 당신은 아직 제주를 모른다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제주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큼 독특한 지역은 또 없을 것이다.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광활한 화산섬으로 온대와 아열대 중간쯤 되는 사철 따뜻한 기후가 종려나무를 곳곳에 키워 이국 정취를 발산한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한라산, 울창한 자연림, 용암동굴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그런 걸 좀처럼 보기 힘든 서양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개성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도 제주도라고 하니 이 섬의 매력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나 역시 제주도를 좋아한다. 해 질 무렵 애월 해안도로에서 석양이 자맥질하는 걸 바라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시큰해진다. 한라산 1100고지와 윗세오름, 산굼부리를 걸으면 온갖 상념이 다 사라진다. 배를 타고 관탈도나 사수도, 가파도, 마라도 인근 해역으로 나가 방어, 부시리, 참돔, 대삼치, 한치, 무늬오징어, 긴꼬리병어돔, 벤자리 등을 낚시로 잡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다. 멜조림, 각재기국, 몸국, 돔배고기, 고기국수, 고사리해장국, 오메기떡, 방어회, 자리돔물회, 갈치국, 전복죽배기, 말고기 등 향토 음식들은 또 어떤가. 낚시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바람과 별과 물 좋아하는 나 같은 낭만주의자(다른 말로는 한량)에게 제주도는 꼭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섬이다.

그런 제주도가 최근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소문난 유명 식당과 카페는 물론 숙박업소와 렌터카, 심지어 해변들이 갯바위에서 바로 펼쳐주는 해산물까지 고개를 가우똥거리게 할 만큼 가격이 비합리적이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비용이면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겠다는 것이다. 나는 제주에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바가지 상술은 근절되어야 하고 제주 관광업계도 반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관광객들도 조금만 발품을 팔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주의 진짜 매력과 만날 수 있다. 조금만 더 찾아봐도 SNS의 화려한 이미지로 떡칠하지 않은, 수수한 제주의 맨얼굴과 마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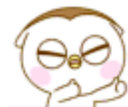
겨울날 제주도 오일등식당에서 유리문 바깥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먹는 동태찌개의 맛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한 자리를 오래 지키느라 허름해진 돈물국수 나무 의자에 앉아 쫄면밀갈국수를 먹으면 수수한 맛과 함께 소박한 세월이 몸속으로 함께 들어온다. 어느새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고기국수의 경우 건물까지 세우고 분점을 거느린 식당에서 대기표 받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제주시의 골막식당이나 함덕에 있는 예소담이 맛도, 양도, 서비스도 월등하다. 제주시 파도식당과 표선촌자살통의 멸치국수는 고기국수보다 산뜻하면서도 깊은 맛을 낸다. 참, 제주시 덕그네할망의 접착떡국과 표선가시식당의 두루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생각나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글이 점점 두서없이 뒤죽박죽이다. 두서없는 뒤죽박죽의 방식으로 제주 식도락 여행을 가보라.

조천에 있는 '시인의 집'에서 무화과바게트를 곁들여 커피를 마셔보라. 시인이 운영하는 책방이기도 한 이 카페에서는 작가들의 친필 사인본을 판매하는데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모든 책들을 소장하고 있다. 조천에 간 김에 선홍방주할머니식당에 들러 땅에서 난 것들을 재료로 한 곰취만두, 검정콩국수, 고사리비빔밥을 먹으면 제주 내륙을 먹은 것이다. 바다 먹거리도 비싸게 먹을 이유가 없다. 사계촌미향식당의 열기조림과 모슬포돈지식당의 자리돔정식, 돈방석식당의 방어정식, 보복포구돌하르방식당의 한치물회, 서귀포 올레시장 회센터의 벤자리, 긴꼬리병어돔, 구문쟁이, 따지 회를 먹는다면 제주에 대한 편견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함덕 서우봉의 노을 속을 걷는 일, 사계 박수기정을 오래 바라보며 절벽의 주름을 세는 일, 한라산 1100고지의 산지습지를 트레킹하다가 내친김에 존자암지까지 오르며 한라산의 초록을 삼키는 일, 돈내코 원양폭포의 사파이어빛 계곡물에서 헤엄치며 온몸을 파랗으로 물들이는 일, 대정읍 추사 유배지에서 400년 전 선비의 외로움을 헤아려보는 일, 위미리 동백군락지를 지나 해안도로를 걷다가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인 카페 서연의 집 통유리창으로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는 일, 해안동 GS 편의점 야외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수놓은 백 개의 달을 보는 일, 편의점 바로 옆 LP바 언플러그에 앉아 친구와 함께 음악을 듣는 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제주가 너무나 많다. 진짜 제주는 걸로 화려하지 않고 함부로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있을 뿐이다. 그 제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행정보

육지에서부터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지만 비행기로 40분이면 닿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힌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여행자들에게도 '환상의 섬'으로 일컬어진다.



그린란드 동토,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죠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2023년 그린란드 국제 공동 심부 빙하 시추 현장에서의 일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던 중 중국인 과학자 한이 빙상 위에 설치된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을 걸었다. 표지판에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코펜하겐을 비롯한 유럽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었다. 그에 더불어 내년 시추 현장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었다. '내년엔 현재 위치로부터 51m에 위치할 예정.'

그가 말했다. "내년엔 우리가 있는 이 캠프가 여기서 51m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린란드 빙상이 매년 수십 m씩 이동하면서 캠프 위치도 그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지. 그런데 왜 1년에 51m씩 움직이는지 알아?"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1년이 52주잖아. 매주 1m씩 이동하는데, 크리스마스엔 빙상도 휴가를 가느라 멈추는 거지." 나는 그의 유머에 크게 웃었다.

실제로 그린란드의 빙상은 매년 수십 m씩 이동한다. 그 움직임을 우리가 머무는 캠프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린란드에는 연중 내내 눈이 내리는데 이렇게 쌓인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축되어 단단한 얼음으로 변한다. 이 얼음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빙하라고 한다. '빙하(氷河)'라는 단어는 얼음 '빙(氷)'과 강 '하(河)'에서 유래해 얼음이 강처럼 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린란드의 총면적은 약 216만6086km²로 이는 한반도의 약 10배에 이르는 크기다. 이 면적의 약 80%는 평균 두께 약 1.5km의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가장 두꺼운 곳은 3km 이상이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그린란드 빙상이라고 한다. 빙상은 최소 5만km² 이상의 넓고 평탄한 지역에 형성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의미한다. 겉보기에는 대륙 위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빙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린란드 빙상 상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얼음 층이 생성되고, 가장자리에서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 기후가 안정적일 경우 새롭게 형성되는 빙하와 녹거나 부서지는 빙하가 균형을 이루어 빙상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지구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린란드 빙상의 후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만약 그린란드 빙상이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은 약 7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란드 국제 공동 심부 빙하 프로젝트는 북동 그린란드 빙류(NEGIS-Northeast Greenland Ice Stream)에서 진행되었다. 그린란드 빙상의 이동 속도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이 지역은 특히 빙상이 빠르게 흐르는 지역 중 하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이 지역의 빙상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정했다.

시추 현장에서 작업을 하며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종종 있었다. 임시로 조성된 시추 캠프에는 식사하고 휴식하는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외부 온도와 바람의 세기를 보여주는 모니터



그린란드 러셀 빙하 앞에서 바라본 붕괴된 빙하의 모습.

신진화

도 설치되어 있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니 외부 기온이 평소보다 매우 높았다. 연중 내내 눈이 내리는 이곳의 기온은 여름에도 영하권을 유지하지만 그날은 영상 1.1도까지 상승해 있었다.

기온 상승은 빙하 코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독일 과학자 셉 박사와 함께 직경 10cm의 수동 시추기를 사용해 3m 깊이의 시료를 채취했다. 일반적으로 최상단의 시료는 단단히凍結된 눈처럼 보인다. 이번 시료에서는 표층의 눈이 녹아 다시 언 흔적이 있었다. 이는 기온이 영상까지 상승했던 그날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추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러셀 빙하(Russell Glacier)에서 빙하 붕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온 세상을 울릴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린란드 캠프 사무실에 걸려 있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그 사진에는 2023년과 2003년의 러셀 빙하 모습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20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후퇴한 빙하를 직접 보면서 기후변화가 극지방 빙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인류 활동으로 발생한 기후변화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현실을 직시하기 무서워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극지연구소 박사



- 1 빙하와 빙상은 어떻게 다를까.
- 2 그린란드 빙상은 기후 변화로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 3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으면 해수면이 약 7m 상승한다.

콜럼버스가 북미 등지고 남미로 향한 까닭



게티이미지뱅크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1492년 미국 대륙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는 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를 등지고, 남쪽으로 갔을까? 만약 하늘에서 콜럼버스와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현대의 북미 대륙을 볼 수 있다면, 자신들이 헌신처럼 버렸던 곳이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을 보고 후회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스페인이 북미에 식민지를 건설해 미국과 캐나다가 스페인의 전통을 이어갔다면, 오늘날 지중해 국가들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15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엄밀히 말해 그들의 선택을 실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신대륙을 찾았던 약 500년 전 남미는 북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지역이었다. 북미 대륙은 농사를 지을 만한 비옥한 땅도, 지하자원도 풍성하지 않았다. 특히 농사나 자원 채취에 동원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반면 남미는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다. 실제 17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남미가 아닌 북미를 식민지로 선택한 이유도 당시 군사력과 경제력이 더 강력했던 이베리아반도 국가들을 의식적으로 피한 결과이다.

과거에는 말할 수 없이 척박했던 북미 대륙에 건국된 국가들이 인구와 자원이 풍부했던 남미 국가들보다 지금에 와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이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은 이런 딜레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을 제시했다.

남미에는 원주민이 많고,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이것을 약탈하는 구조의 정치·경제 제도가 파생되었다. 반면 북미 지역은 원주민이 적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인들을 대륙으로 이주시켜 공동체를 건설해야만 했다. 따라서 북미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유럽의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했다.

남미 지역에는 왕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진 중앙집권적인 국가 형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기존 계급 제도를 변형해 많은 피지배계급에 속한 원주민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할 수 있었다. 반면, 북미에서는 자유인인 유럽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시민들이 누리는 사

유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경제 모형에서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가 풍부해야 한다. 그런데 아제모글루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제도'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국가 제도의 차이, 즉 포용적 제도와 약탈적 제도가 각각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고, 사유재산권 보장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인 시스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부존 자원이 많고 노동력이 풍부했던 남미의 경제가 북미보다 훨씬 앞서야 했다. 실제 대항해 시대인 약 500년 전 남미 대륙은 북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스페인의 앞선 기술까지 수용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남미의 식민지 국가들은 원주민의 노동력과 자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감소시켰다. 북미는 달랐다. 이 주민들은 금광과 비옥한 농지를 찾아 집을 꾸리고 과감히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이런 제도적 인센티브가 정착민들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오늘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포용적 제도'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 법률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준다. 이들의 이론은 현대 사회 정부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인공지능(AI)·4차 산업혁명,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회 제도가 기술과 자본의 성과를 소수만 향유하고 경제 성과 대부분을 착취하는 행국이 되면 일반인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높은 금액의 연금과 과도한 복지 정책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으로 열심히 일할 유인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고령층이 빈곤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원대학교 교수



시사용어 CHECK

노벨상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기려 매년 인류를 위해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 물리학, 문학, 경제학 등 6개 분야에 대한 상이 수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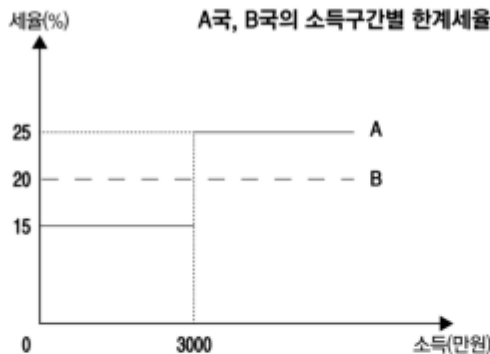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정책은?



틴매경TEST
공부합시다

〈문제〉

아래 [그림]은 A국, B국의 소득수준별 한계세율을 나타낸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 A국과 같은 소득세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 B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액이 일정하다.
 - ㉢ A국에서는 소득이 30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에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 B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 I | A국의 소득세제는 누진세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 ㉡: I | B국의 소득세제는 정률세로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세액도 증가한다.
- ㉢: I |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중은 15%, 소득이 30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그 비중이 15%보다 높다.
- ㉣: I | 정률세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대비 납부세액의 비중이 일정하다. 정답 ②

〈관련 내용〉

B국의 사례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면 납부세액은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가령 '김씨'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씨'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일 때 납부세액은 '김씨'의 경우 600만원, '이씨'의 경우 1200만원이다. 이때 두 사람의 납부세액 간 비(比)는 1대2로 소득의 비와 같다.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김씨'의 세후 소득은 2400만원, '이씨'의 세후 소득은 4800만원으로 세전에 비해 세후 소득 격차는 감소(3000만원→2400만원)한다.

이처럼 한계세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정률세(proportional tax)' 또는 '비례세'라고 하며,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세금 구조에서는 '소득 대비 납부세액의 비'는 일정(한계세율·여기서는 20%)하다.

A국의 사례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세율도 함께 상승하는 세금을 '누진세(progressive tax)'라고 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김씨'의 경우 '3000만원 × 15% = 450만원', '이씨'의 경우 '3000만원 × 15% + 3000만원 × 25% = 1200만원'과 같이 계산된다. 이 경우 두 사람 간 세후 소득 격차는 '4800만원('이씨') - 2550만원('김씨') = 2250원'으로 정률세의 경우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누진세는 정률세에 비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

현실에서 소득 원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등)은 대부분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정률세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세후 소득 격차를 줄여 별도의 재정 정책(이전지출을 포함한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 없이도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줄여 경기 변동(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가 된다.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사용어 CHECK

한계세율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더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누진세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세율도 상승하는 세금. 소득 증가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로 부과하면 비례세가 된다.



‘사전 찾기’ 생각해보면 형용사·관형사 구분 쉽죠

다음의 두 문장에는 똑같이 ‘다른’이라는 모양의 단어가 쓰였다.

- 1)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많다.
- 2)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단어이다. 각종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5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에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다. 문법에서는 ‘형태소, 품사, 단어 형성 방식’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문학이나 비문학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들을 접해야 하기에 미리미리 해당 내용들을 익혀둘 필요가 있겠다. 이 중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지난 회차에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보다 큰 단위의 ‘품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자.

우선 ‘품사’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쉽게 말해, 국어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 그룹명을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명사’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묶어 통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품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내용 중 하나에 주목하겠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개념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확인하자.

-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 관형사: 명사·대명사·수사를 수식하는 품사

어린 시절부터 영문법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특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영문법에서 형용사는 수식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국어의 품사는 형용사가 아닌 관형사임을 기억하자. 국어에서는 관형사가 영어의 형용사와 동일하게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다음의 대표적인 관형사는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 1) 새/헌 집
- 2) 옛 사람
- 3)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
- 4) 이/그/저 건물
- 5) 이런/그런/저런 이야기
- 6) 한/두/세 개

국어의 형용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형용사처럼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만 영어와 동일할 뿐, 문

장에서의 기능과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어의 형용사는 ‘-다’로 끝나는 단어이며, 문장을 서술해주는 기능을 한다. ‘아름답다, 멋지다, 따뜻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의 형용사가 모양이 바뀌어 문장에서 마치 관형사처럼 쓰인다는 점이다. 이를 문법적으로는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1) 많은 물건
- 2) 예쁜 그녀
- 3) 작은 사과
- 4) 높은 건물
- 5) 젊은 사람

위의 예시들을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관형사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분명히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쓰여 수식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공개하겠다. ‘해당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기본형을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밑줄 친 단어들은 사전에서 ‘예쁘다, 많다, 작다, 높다, 젊다.’의 형태로 찾아야하므로, 각 단어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관형사의 예시와 비교해본다면 생김새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맨 처음 제시했던 질문에 답을 해보자.

1)의 ‘다른’과 2)의 ‘다른’은 관형사일까 형용사일까? 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해당 자리에 ‘다르다’를 넣어보기! 문법적 용어로, ‘서술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는 앞서 소개한 방법인 ‘사전에서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찾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기도 하다. ‘다르다’를 넣어 문장이 성립할 경우에는 기본형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형용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형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예시를 생각해보자. 1)의 경우 ‘다른’을 ‘다르다’로 바꾸어 생각했을 때, ‘생각이 다르다’라는 문장이 성립한다. ‘다르다’라는 형용사의 서술성을 그대로 지니므로, 형용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2)에 ‘다르다’를 넣을 경우, ‘자기 일 밖의 다르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므로, ‘서술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2)의 ‘다른’은 형용사가 아닌 관형사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사실상 ‘다른’이라는 관형사만 주의하면 관형사와 형용사의 구분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관형사의 구체적인 예시들, 문장에서 형용사를 찾는 방법, 그리고 ‘다른’을 기억해두자.

메가스터디강사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 1 대표적인 관형사 ‘새, 헌, 옛, 온갖, 다른’
- 2 형용사는 ‘~다’로 끝나는 서술성을 지닌 단어
- 3 ‘사전서 기본형을 무엇으로 찾을까’ 기준으로 생각하기



실수 반복 않도록 10월 학력평가 되풀어보자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이제 수능까지 2주 정도 남았다. 계속 실전 모의고사만 풀면 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시기이다. 시험이 임박하면 복습과 실전 연습의 비율을 5대5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습을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정리하는 접근법은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학력평가였던 10월 학평 문제를 통해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정리해보자.

주제는 같지만, also를 중심으로 세부 소재의 전환이 일어난다.

‘문장 삽입’ 문제인 39번 문항의 상사 속 제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We are also able to use the cerebellum to anticipate what our actions would be even if we don't actually take them.

(우리는 또한 소뇌를 사용하여 실제로 그 행동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also를 단서로 제시문 앞에도 ‘소뇌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그 역할이 ‘예측’의 기능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소뇌의 역할 A’에서 ‘소뇌의 예측하는 역할’로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에 해당 제시문이 삽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however를 중심으로 대비되는 정보에 주목하라.

‘글의 순서’ 문제인 36번 문항의 상사 속 제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From infancy, even before we learn to speak, we absorb how to infer people's emotions from their behaviors.

(말하기를 배우기 전인 유아기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추론하는 방법을 흡수한다.)

이제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살펴보면, 이 제시문과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는지를 확인해보자.

(A) Some people, however, have a talent for detecting emotions, even when they're unspoken.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감정이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에도 감정을 감지하는 재능이 있다.)

(A) 단락은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로 시작하기 때문에 감정을 감지하는 데 능한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즉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A) 단락은 제시문 뒤에 바로 이어질 수 없다.

(C) It's natural to assume these people are unusu-

ally observant, or uncommonly sensitive.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대단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C) 단락은 these people이라는 단서를 통해 앞서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 단락은 제시문 뒤에 바로 이어질 수 없다.

(B) As we grow older, however, this capacity can atrophy.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며, 이러한 능력이 쇠퇴할 수 있다.)

(B) 단락은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탁월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단락이 제시문 뒤에 바로 이어져야 한다.

반복되는 키워드를 통해 지문의 주제를 먼저 도출하라.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의 밑줄로 제시된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Once I was a scuba diver in the sea of words. Now I zip along the surface like a guy on a Jet Ski.

(한때 나는 언어의 바닷속 스쿠버 다이버였다. 이제 나는 제트 스키를 타는 사람처럼 수면 위를 뱅하고 달린다.)

밑줄 문장의 의미를 해석을 통해 알아내겠다는 접근법 대신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키워드를 통해 주제를 먼저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once와 now라는 표현을 통해 지문이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달라진 상황에 대해 반복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his lost ability to stay on one path

(한길에 머무는 능력 (집중력)의 상실)

It reduced his ability to focus and reflect~

(이는 집중하고 성찰하는 그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위와 같은 단서를 통해 ‘constantly being distracted’가 포함된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 이투스 강사



핵심문!

- 1 주제는 같아도 also를 중심으로 세부 소재가 전환
- 2 however를 중심으로 대비되는 정보에 주목
- 3 반복 키워드를 통해 지문의 주제를 먼저 도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효소



게티이미지뱅크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은 다음 발효시켜야 한다. 술을 빚을 때와 마찬가지로 효모는 반죽 속 당분을 분해하는 발효를 통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든다. 이 기체가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다.

효모 속 어떤 성분이 당분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것일까? 옛날 사람들은 효모 성분의 실체를 잘 알진 못했지만 이 성분을 일단 '효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소화 효소를 포함하여 엄청나게 다양한 효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질대사 과정의 효소의 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한 영양소를 분해하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등 체내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화학 반응은 효소 없이는 신속하게 작용하기 어렵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물질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촉매는 자연적 반응보다 생성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물체 내 화학 반응이 체온 범위 내에서 다른 물질이 없어도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오래 보관해도 그 속에 든 탄수화물, 단백질들의 영양소가 당이나 아미노산 등 저분자 상태 물질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소화관 속에 있는 소화 효소 작용을 받아 음식물 속에 든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단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당 혹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개구리가 반응물이라는 연못에서 생성물이라는 연못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두 연못 사이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을 '반응'이라고 보면 장벽은 반응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한다. 두 연못 사이의 장벽 높이가 낮을 때 더 많은 개구리가 반응물의 연못에서 생성물의 연못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더 많은 반응 분자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화학 반응이 일

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특히 생물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효소다.

효소는 생체 반응에 필수적인 촉매 역할을 하며, 인간의 생명 활동에 많이 이용된다.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손을 베인 경우 상처를 그대로 두면 피가 계속 흐르고, 공기 중 병원균이 침입하여 점점 악화된다. 이때 체내에 있는 효소가 상처 주위에 모여들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출혈을 막고,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지만 온도를 높이면 그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병에 걸린 환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병의 치료가 가능할 때 살려내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효소들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유전자가 중요한 것은 수많은 효소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효소가 어떻게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의 촉매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대상이었으며, 효소 기능의 연구는 생명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효소는 화학 촉매에 비해 기질 특이성이 뛰어나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생명체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부산물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효소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 다단계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거나 화학 합성 방법으로 생산이 어려운 화합물을 매우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효소 반응은 앞으로 정밀 화학, 의약품, 식품,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초고온성 미생물의 발견은 생체 촉매 기술을 화학 공업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초고온성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생체 촉매는 100도 이상 고온에서 안정화되고, 유기 용매나 산, 염기를 첨가해도 쉽게 불활성화되지 않는다. 안정화된 생체 촉매를 활용해 기존 화학 공정을 환경친화적 생물 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투스강사



- 1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촉진시킨다.
- 2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 기능이 정지되지만 온도를 높이면 원상태로 회복된다.
- 3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뛰어나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연세·한양대, 사탐 응시자도 자연계열 지원 가능

2025학년도 정시모집은 많은 변화로 인해 지난해 입시 결과를 그대로 참고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올해 정시모집에 적용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고려·홍익대, 지방국립대 외 수능 과목 제한 없어

2025학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대부분 대학이 자연계열에서 수능 응시 과목 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고려대(간호, 가정교육 제외)·서울대·인천대·홍익대, 지방권에서는 강원대·경북대·고려대(세종)·부산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 등 주요 국립대를 제외한 대다수 대학에서 학과 통계,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도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해졌다.

과탐 지정 대학 예시

| 구분 | 모집단위 |
|------------------|---|
| 전 모집단위 과탐 지정 | 고려대(간호, 가정교육 제외), 고려대-세종(빅데이터사이언스 제외), 서울대, 인천대(자유전공: 자연, 패션산업 제외), 홍익대, 홍익대-세종 |
| 일부 모집단위 과탐 지정 | 가천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미래,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

* 의학학 제외 및 일반 모집단위 기준.

사탐 응시자 자연계열 지원 가능해 교차지원 줄어듦 전망

이전까지 인문계열에는 수능 응시 과목에 제한이 없고 자연계열에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에서 점수 우위를 점하면서 인문계열로의 교차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올해는 지정 과목이 폐지되면서 중위권을 중심으로 사탐권 현상이 나타났다.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과탐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상위권 대학에 비해 크지 않아 사탐으로 우회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인문계열로의 교차지원은 줄어듦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자연계열 과탐 가산점

| 구분 | 모집단위 |
|----|--|
| 3% | 국민대, 동국대(수학, 통계, 산업시스템공 제외), 세종대(일부 제외), 숙명여대(첨단공),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
| 5% | 단국대-죽전, 성균관대, 세종대(자연과학대, 생명과학대, 자연생명계열), 숙명여대(신소재물리: 물리 선택 시), 숭실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
| 6% | 이화여대 |
| 7% | 서울시립대 |
| 4점 | 경희대 |

* 성균관대는 최대 5%까지로 정확한 가산점 부여는 추후 발표 예정.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상위권 다군 선발 증가 등 변수

올해는 역대급으로 입시에 큰 변화가 많다. 변수들이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분석해야 한다. 우선 최상위 모집단위인 의대에서 약 1500명이 증원되는데, 이는 자연계열로 보면 한 대학의 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계열에서는 지난해 입시 결과 기준 대학 한 레벨 정도를 업그레이드해 지원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무전공도 확대되었는데 모집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학과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할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숙명여대의 경우 303명을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면서 대부분의 모집단위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인문계열은 경영학부가 70명에서 35명으로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자연계열은 인공지능공학부가 32명에서 11명으로 21명이나 감소한다. 이 경우 입시 결과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부터 상위권 대학 다군 신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올해 크게 확대되었다.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에서 신설 모집단위를 다군에 배치하거나 기존 다군-다군 모집단위를 다군으로 이동했다. 특히 고려대 학부대학, 동국대 열린전공학부, 서강대 인문학 및 AI 기반 자유전공, 한국외대 자유전공,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와 같이 선발 규모가 큰 무전공 모집단위가 다군에 많이 배치되었다.

2025학년도 주요 상위권 대학 다군 신설·이동 모집단위

| 구분 | 모집단위 |
|-------|---|
| 고려대 | 학부대학(교과우수 18명, 일반 18명) |
| 동국대 | 바이오시스템(25명), 열린전공(인문 69명, 자연 60명) |
| 서강대 | 인문학기반자유전공(47명), AI기반자유전공(35명) |
| 서울시립대 | 첨단인공지능(5명), 융합바이오헬스(2명), 융합융용화학(8명) |
| 성균관대 | 양자정보공(10명), 글로벌바이오메디칼공(11명), 글로벌경영(44명) |
| 이화여대 |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인문 22명, 자연 48명) |
| 한국외대 | 자유전공(42명) |
| 한양대 | 한양인터칼리지(60명) |

2025학년도 수능 어렵게 출제된다 생각하고 대비해야

올해는 입시 변화도 크지만 수능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6월·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학생들의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 6월 모의평가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8점, 수학 152점으로 지난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했다. 다만 영어는 1등급이 1.47%로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9월 모의평가에서는 모든 영역이 너무 쉽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29점, 수학 136점이었으며 영어 1등급 비율은 무려 10.94%에 달했다.

두 번의 모의고사에서 난이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지 수험생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모의평가는 수능을 치를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이를 실제 수능에 적용하기 위한 연습 시험에 불과하다. 따라서 잘 출제된 시험이라고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을 기준으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올해는 의대 증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능이 9월 모의평가와 같이 쉽게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수능 또는 올해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주가 상승의 비결은... 배당 많거나 실적 좋거나



게티이미지뱅크



허세운 기자의
틴재테크 첫걸음

여기에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칼은 위험한 물건이죠. 잘못 사용하면 손을 벨 수도 있고, 심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하면 요리도 할 수 있고 종이도 자르고 눈썹 정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칼은 위험하지만 잘 사용하면 유용한 물건입니다.

원금 손실 없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에 비하면 주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금융상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손해볼 수 있으니 관심조차 두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마치 칼은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식 투자자

커피전문점을 차리려고 준비하는 김 사장은 창업자금을 마련하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커피전문점 문을 열려면 최소한 5억원이 필요하다는데 김 사장이 모아놓은 현금만 3억원이 전부입니다. 부족한 2억원을 마련하려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2억원을 빌릴 수 있겠죠. 돈을 빌릴 때에는 매달 이자를 얼마씩 지불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김 사장과 마찬가지로 회사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커피전문점 경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김 사장은 부족한 자금 2억원 중 1억원은 대출을 받고 1억원은 투자를 받아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커피전문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1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주고, 빌린 돈 1억원에 대한 대출 증서로 채권을 줍니다. 이 회사의 장부에는 김 사장이 직접 투자한 자금 3억원을 포함해서는 4억원의 자본금에 대해 주식이 발행되고, 여기에 부채 1억원이 더해져 총 5억원의 자산을 갖게 됩니다.

김 사장은 현금 5억원으로 커피전문점 자리를 임대해 인테리어도 하고 커피머신과 냉장고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개업 준비를 합니다. 이때 주식과 채권투자자들

은 서로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채권투자자에게는 커피전문점 매출과는 상관없이 약속된 날짜에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굴러가서 큰 이익을 내더라도 채권투자자에게는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만 주면 됩니다.

반면 주식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이익을 투자금에 비례해서 나눠줘야 하는데 이를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은 철저하게 기업의 성과에 달렸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할 때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사업이 대박이 나면 주식투자자도 함께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회사를 정리할 때도 주식과 채권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잘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회사 사장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빗쟁이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채권투자자들은 회사가 문을 닫아도 회사 자산을 처분해서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수익의 원천은 배당

보통 주식투자를 하면 내가 산 주식의 가격보다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단기간 내 주가가 땀 종목만 찾게 되고 테마주나 작전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는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칼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투자 수익의 원천은 기업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당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실적이 좋아져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을 안전하게 다루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듯이, 주식투자도 실적이 좋거나 좋아질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ETNETF로 승부하라> 저자



시사용어 CHECK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가 부양 정책. 여기서도 주가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배당 확대가 핵심 조치로 포함돼 있다.

경기 살리는 금리 인하...가계빚 늘 수도



쉽게 풀어 쓰는 경제뉴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긴축기조에 들어간 지 3년2개월 만입니다.

Q 금리 인하의 의미는.

A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낮추면 은행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 가계와 기업이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주목적은 경기 부양으로,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Q 통화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1.6%로 목표치를 하회하는 등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그만큼 내리고, 대출 금리도 낮춰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투자나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며 자본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자본 유출이 많아질수록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해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대에 더해 근로자 임금 상승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Q 금리 인하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A 완화적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대출을 늘리기도 합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가계 파산이나 은행 부실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급등 역시 우려됩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인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몰리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해 투기심리를 자극하거나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내수와 시장을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기조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사진렌즈 속 세상 읽기

2026년, 우주인은 프라다를 입는다



2026년 명품 브랜드 프라다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AFP,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와 프라다가 16일(현지시간) 밀라노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사용될 차세대 달 우주복을 공개했다. NASA에 따르면 달 남극은 낮에는 54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영하 203도까지 냉각될 만큼 온도 변화가 극단적이다. 두 회사는 공동성명에서 이 우주복은 달 남극의 극한 기온을 최소 2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주비행사들은 이 우주복을 입고 최소 8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다. 최초의 여성 달 탐사가 목표인 만큼 우주복은 남녀 공용이며 치수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AFP 연합뉴스



‘천원 아침밥’ 법으로 지켜주길

광남중학교 2학년 노윤영

“오늘 아침 드셨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20대(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53%로 가장 높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이다.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최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자선단체가 후원하거나, 지역 사회와 연계해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받는 방식이 이뤄진다면 사업의 질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법제화는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게 얼마나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한다.



지폐에 기업가 넣기 신중할 필요

광남중학교 2학년 배민서

최근 한국 지폐에 기업가의 초상을 넣는 방안에 대한 논의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10달러 지폐에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이, 캐나다의 10달러 지폐에는 여성 흑인인권 운동가 비올라 데즈먼드가 등장한다. 여러 국가의 지폐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한국의 지폐에는 조선시대 인물뿐이다.

경연계에서는 “지폐에 기업가를 넣는 것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들을 기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폐 디자인의 변화는 국민의 정서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폐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폐에 특정 인물을 넣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기업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폐 디자인의 변화는 단순한 시각적 변화 이상을 담고 있다. 한 나라의 지폐는 그 나라의 경제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헌혈, 자발적 봉사로 인식돼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박수민

정부의 헌혈 정책 변경 이후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율이 큰 변화가 생겼다. 2019년 교육부가 헌혈을 대학 입시 봉사 활동 실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율이 급감했다. 2018년에는 79만명의 청소년이 헌혈에 참여했으나 2022년에는 그 수가 47만명으로 41%나 감소했다. 청소년의 헌혈 참여 감소는 국내 혈액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 역시 나눔의 가치,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심 등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헌혈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혈액을 기부하는 고귀한 행위이다. 타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공동체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다. 헌혈은 공동체와 연결되는 상호 의존성을 상징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다. 헌혈은 타인을 돕는 자발적 봉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가산점이나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때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헌혈이 순수한 공익 행위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헌혈을 보상을 바라는 행위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품위 있는 죽음을 논의할 때

경민중학교 3학년 박지우

고통 없이 죽을 권리는 존재할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 기기인 ‘사르코(Sarco)’가 처음 사용되자 이를 판매하고 운영한 관리자들이 자살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 조력 사망이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조력 사망 기기인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로,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빠져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스위스 정부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르코의 판매와 사용은 승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고 대부분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을 전전하다 온몸에 의료기기를 매단 채로 생을 마감한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환자의 죽음을 막는 것은 무의미한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다. 연명치료를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곧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우리도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존엄사에 대한 엄격한 판정 기준과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49회

틴매경 TEST

시험일

2024년 11월 30일(토)

접수기간

10월 21일(월)~11월 18일(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 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 A.B) / 등록민간자격(C, 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응급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사 : 장대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여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59 | 홈페이지 : <http://mkttest.org> | 이메일 : mkttest@mk.co.kr